

## 목포해수청, 항내 공유수면 일제점검 실시

- 6월 12일 ~ 30일,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 점검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정문수)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·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·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.

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,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, 해상테크 등 국가·지자체 관리 시설 21개소, 부잔교 등 계류 시설 3개소,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, 포락지 토지 조성 1개소 등 총 42개소이다.

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, 무단 점용·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,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.

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,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목포해수청 김현성 해양수산환경과장은 “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기관명	목포지방해양수산청	책임자	과 장	김현성 (061-280-1670)
담당 부서	해양수산환경과	담당자	담 당	김 철 (061-280-1671)
			주무관	홍봉균 (061-280-1709)